

한화, 미네소타와 태양광 · 바이오 협력

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를 만나 경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.

한화 김승연 회장은 9월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마크 데이튼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와 만나 태양광 사업 등 신·재생에너지와 바이오시밀러 협력, 농축산물 교역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

김승연 회장은 “한화는 최근 미국의 원루프 에너지, 크리스탈솔라 지분을 인수하는 등 성장성이 큰 미국 태양광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”며 협력을 요청했다.

이에 대해 데이튼 주지사는 “미래 신·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은 주요한 비즈니스로 떠오를 것”이라면서 “미국시장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화답했다.

데이튼 주지사와 함께 온 경제사절단은 태양광, 바이오, 농축산 분야에서 한화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자 미팅을 가졌다.

<화학저널 2011/09/29>